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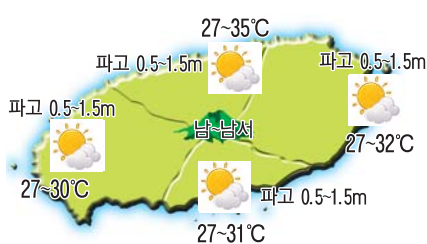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23일 화요일 음 6월 18일 (10월)

한라칼럼

기상정보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7°C, 낮 최고기온은 30-35°C로 예상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an,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moon phase, and UV index.

주간예보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월드뉴스

“호황 인도서 최선호 일자리는 ‘공무원’”

경쟁률 300대1 넘어

인도가 연평균 7%대 고성장을 이어나가며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뛰어올랐지만, 인도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무원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공무원 시험 학원 수강생들 연합뉴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72만2000개의 연방 정부 일자리가 새로 생겼지만, 이 자리에는 무려 2억2000만명이 지원했다.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다. 인도에서는 2017년 이후 매년 20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중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닌 자영업과 임시 농장 고용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6만명의 경찰을 뽑을 때는 약 500만명이 지원했고, 2만6000명을 뽑는 중앙정부 보안 기관 경찰 채용에는 470만명이 몰렸다.

반면 공무원은 정부가 정년까지 자리를 보장해주고, 의료 보험과 연금, 주택 제공 등 민간에서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는다.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각종 이권을 놓고 책상 아래에서 비공식 수입을 얻을 기회도 있다.

이처럼 공무원에 많은 사람이 지원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우정애 제주한라대학교 겸임교수

최근 어느 신부님의 강의에서 들은 몇 년 전의 이야기다.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옮겨본다. 한 신부님이 어린이 미사 시간에 강론을 이어가다 질문을 하셨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12제자가 있었습니까.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한 제자가 있는데 누구 일까요?” 하자 한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들고 “아스카리웃 유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용기를 자득(自得)하는 사회

가 “우병우인가? 김기춘인가?”라고 대답해 미사 중인 사람들이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로 미사 분위기가 슬렁거렸다는 이야기다.

위 이야기를 통해 영향력 있는 주변 사람의 말과 행동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과 배움을 반복하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onstegard, Bitter & Pelonis (2004)의 사회공동체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 낮은 시력, 예리하지 못한 발톱, 민감하지 못한 청력을 가짐으로써 약점을 가진 인간끼리 무리를 짓고, 노동을 분업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생존을 이어왔다고 한다.

이러한 군집형성을 지지했던 심리적 자제는 소속의 느낌과 상호의존, 보호(양육), 협력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아이들이 살아가고

성장하는데 필요하므로 부모는 세로 탄생한 아이를 적응시켜야 하는 양육의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공동체는 아이들의 소속과 협력을 키우는 첫 장(場)이 되는 것이다.

한편,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리하게 지적한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9)는 양육의 과정에서 키워지는 용기는 협동하고 사회적 관심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 보고 있다. 성장하는 아이가 자신의 개인적 결함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향상시켜 나아갈 때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자득(自得)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득이 삶의 자취로 드러나는 것이 행복감이고, 그 강도는 타인과의 협동 정도에 비례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신부님의 질문에 답하는 이 어린이가 성서 안의 유대를 기억하며 청문회장의 정치인 말을 연결 지은 것을 보면 ‘모름이다’는 정직하지 못한 것 즉, 거짓인 것으로 인식된 안타까운 모습이다. 각 시대마다 사회적 이슈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청문회 내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그 파급력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아이의 주관적인 해석을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모 또는 사회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이슈를 해석하는 관점이 그 아이의 것이 되고 사회공동체에 협동하는 기분을 배우며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자득(自得)해 용기를 키워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관심



강경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마다 국제교류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비슷한 지역을 찾고 연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교류를 하기 전에 지역의 정책들을 수집해 우리와 맞는 분야를 살펴봐야 한다. 즉 우호협력, 산업교류, 친선결연, 청소년교류, 비즈니스 중 무엇을 중요하게 다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세계 도시와 권역별 상권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만일 지역을 선정했다면 그 지역의 전문 전시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문할 지역이나 기

열린마당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세요



장윤희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관 선정이 어렵다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업무24에, 해외도시 정보 공개하다면 해외정보 분야에 문의하고, 방문기관 섭외 분야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 기관을 방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출국일 40일 정도 남기고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는데 6개(일본, 중국, 호주, 프랑스, 미국, 영국) 해외사무소에 한한다. 각종 업무보고, 도의회 일정 마무리한 후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 우수 정책을 학습하는 공무원 일정이면 금상첨화지만 일정이 맞아 떨어지는 때를 기다릴 수는 없다.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위주의 일정으로 마련하다 보면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 휴가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주의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관 섭외가 최종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사진촬영 등을 위해 현지 기관에 직접 찾아가거나 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을 요청하는 사례는 절대 삼갈 일이다.

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제대로 촘촘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등의 방문 조사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되었는데 비대면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①스마트폰에 ‘정부24 앱’ 설치 ②메인화면의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 클릭 ③본인 인증 및 세대원 정보 확인 ④사실조사 완료 ⑤위치 정보 확인 후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아주 나이스하고 스마트한 제도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Advertisement for 'Sirt'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like '만감류', '조생', '기타' and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for Hanra Jongsyo.

Advertisement for 'Gamsul'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like '과수우량품종', '국내육성 신품종' and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for Hanra Jongsyo.

Advertisement for 'Gamsul'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like '감귤보급품종', '국내육성품종', '포트묘목' and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for Minseong Jongsyo.

Advertisement for TI Information Technology, highlighting services like 'VOICE & 영상장비', 'NETWORK 설비', 'ONE-STOP SYSTEM' and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